



문 의	특허심사기획국 의료기술심사팀	과 장 최정윤 042-481-5556 사무관 전창익 042-481-8303
	2015년 11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3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의료기기 분야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통창구 열린다

- 특허청과 3개 의료단지, 관계기관 공동 「의료기기 IP 협의체」 발족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작년 말에 수립한 「의료기기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11월 4일(수)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의료기기 IP 협의체」를 발족한다.

* (‘14.12월 수립)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여 특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붙임 1)

협의체는 특허청과 3개 의료단지 및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발족하며, 의료기기 업체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소통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헤드쿼터(headquarter)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붙임 2)

* (3개 의료단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관계기관)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이 있는데, 이는 특허청이 기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 및 분쟁 동향을 바탕으로 유망 기술이나 공백 분야를 선정하고,

심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는 맞춤형 특허전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기업과 특허청 간의 의견교환과 특허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 출원/등록/분쟁 동향에 대한 DB제공, 공공기관의 IP를 활용한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과 더불어 열린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pool) 구축 등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미래 유망 산업이므로 외국의 특허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붙임 3) 또한, “국내 의료기기 특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특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료기기 IP 협의체」를 통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임 : 1. 의료기기 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
2. 「의료기기 IP 협의체」 발족 및 운영계획.
3. 의료기기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 끝.

의료기기 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요약)

□ 세부 추진방안

1 시장 진출 및 성공을 위한 특허창출·보호·활용 지원

① 의료기기 특허정보 DB 제공

- 의료기기 산업의 특허분류(IPC) 매칭기준 마련
- 의료기기 新분류기준에 따른 국내 특허출원동향 DB화
- 의료기기 관련 특허분석보고서 DB화

②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

- 기업규모 및 분야별 특허 전략 제공
- 의료기술 논문 트렌드 DB 제공
- 중소기업에 위한 맞춤형 출원 및 심사가이드 제공

③ 의료기기 산업의 지재산 보호·활용 정보 제공

- 의료기기관련 특허분쟁사례 DB 구축 및 지재산협의체 구축
- IP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등록DB 구축·제공

2 의료기기 산업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의료기기 IP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의료기기 산업의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의료기기 전문가포럼 및 세미나에 지재산 세션 개설

② IP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의료단지 중심의 지재산 순회 세미나 개최
- 의료기기 관련 전시회에 특허청 부스 설치·운영
- 연구회 중심으로 지재산 관련 자료 홍보 및 IP Q&A 운영

3 특허 3.0 패러다임 기반의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① 의료기기 분야 특성을 반영한 심사의 일관성·정확도 제고

-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 의료기기 분야 진보성 판단 가이드집 발간
- 의료기기분야별 다수인용참증집 제작 추진

② 소통·개방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 현장 중심의 쌍방소통형(업체-심사관) 기술교류 과정 신설 운영
- 의료기기 전문가를 활용한 과내 ‘열린심사’ 시행
- 전문직위제도를 활용한 협의심사 활성화
- 의료기술 분야 선행기술조사 품질 강화

붙임 2

의료기기 IP 협의체 발족 및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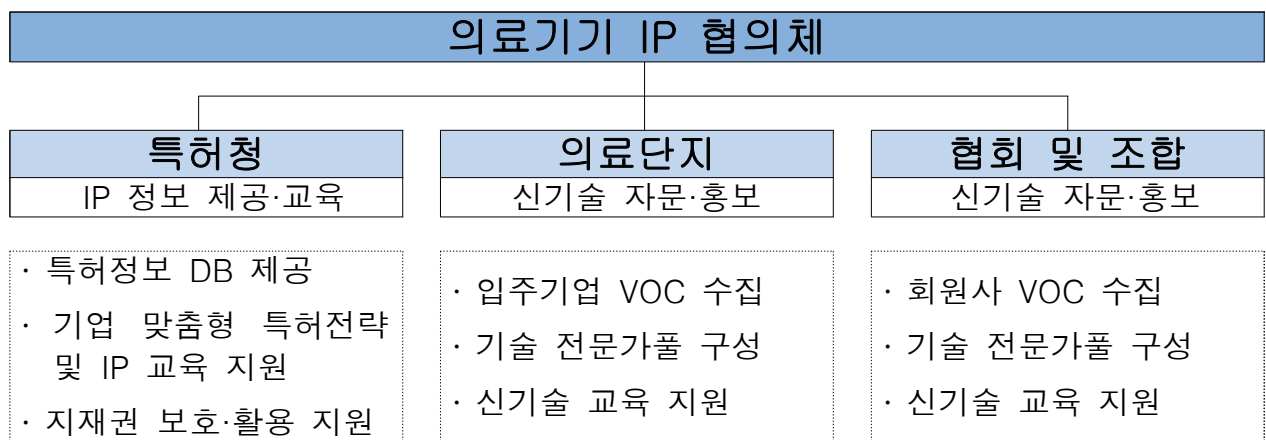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의료기기 관련 단체 및 기업과 소통·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 3대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

* ①시장진출 및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②의료기기 산업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특허 3.0 패러다임 기반의 고품질 심사기반 구축

- 기존 의료단지와 관련 학회, 조합을 네트워크화하고 특허정보 및 기술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지재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조직 구성 및 운영



- (구성 : 총6개 기관) 특허청, 3개 의료단지*, 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위원장) 3개 의료단지 중심의 순환식 1년 임기제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협의체 정기총회를 주관
- (간사) 특허청과 의료단지에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및 회의 일정·내용 관리
- (위원) 기관별 4명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은 협의체 운영계획의 확정 및 운영 프로세스 확정

□ 주요 추진 내용

주요내용	절차 및 기관별 역할
특허정보 DB 제공	① 특허청은 출원·등록동향 및 분쟁동향 자료 수집·분석 (1~2월) - 출원·등록동향은 전년도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10년 기준 - 분쟁 동향은 최근 사례 중심 ② 공유 세미나 (3월) -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공유 세미나 발표 ③ 의료단지, 협회 및 조합은 전파 및 홍보 실시 (3월 이후)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	① 의료단지, 협회, 조합이 입주기관과 회원사로부터 VOC 청취 (5~6월) - 맞춤형 특허정보에 관한 VOC 청취 양식 마련 ② 의료기기 IP 협의체가 세부 기술 분야 또는 기업 선정 (7월) - 의료단지, 협회 및 조합은 VOC 청취 결과를 특허청에 전달 - 특허청은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 또는 기업 선정 ③ 특허청은 선정 기술분야에 대한 맞춤형 특허전략 마련 (8~9월) - 선정 기술 분야 또는 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동향 분석 실시 - 선정 기술 분야의 품목에 대한 특허분쟁 동향 분석 실시 - 선정 기술 또는 기업의 공백 분야 분석 실시 - 맞춤형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협의체 위원에게 전달 ④ 의료단지, 협회 및 조합은 전파 및 홍보 실시 (10월 이후)
공공기관 IP 활용	① 의료단지, 협회, 조합이 입주기관과 회원사로부터 VOC 청취 (11~12월) - 공공연구기관 보유 IP 활용에 관한 VOC 청취 양식 마련 ② 의료기기 IP 협의체는 이전·사업화 신청 기업 선정 (1월) ③ 특허청은 해당 기술 분야의 공공연구기관 보유 IP 분석 (2 ~ 3월) ④ 의료기기 IP 협의체는 분석 결과를 해당 기업에 홍보 (3월 이후)
신기술교육 전문가 활용	① 특허청은 교육이 필요한 신기술 분야 선정 - 4월, 10월 심사관 신기술 교육, 년 4회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② 의료기기 IP 협의체는 기술 전문가풀을 활용한 전문가 추천 ③ 특허청은 추천 전문가를 활용한 신기술 교육 실시
IP 인식 제고	① 특허청은 IP 인식 제고를 위한 강의 목록 작성 (1월) ② 의료기기 IP 협의체에 IP 강의 목록 전달 (1월) ③ 의료단지, 협회 및 조합은 IP 강의 신청 (연중) ④ 특허청 심사관 IP 강의 실시
열린심사	① 의료기기 IP 협의체는 기술 전문가풀 구성 ② 특허청은 외부 자문이 필요한 IPC 선정 (연중 수시) ③ 의료기기 IP 협의체는 기술 전문가풀을 활용한 전문가 추천 - 특허청의 요청 후 2주 이내 전문가 추천 ④ 특허청은 추천 전문가를 활용한 열린심사 실시

붙임 3 의료기기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

□ 의료기기 산업동향

- (세계시장)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3년 3,284억불에서 '18년 4,546억불로 연평균 6.7% 성장 예상*

* '13년 英Espicom(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마케팅 리서치 회사) 추정치

< 세계시장 규모 전망 >



- (국내시장)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3년 4조6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약1.3%에 해당

* '13년 식약처, 2013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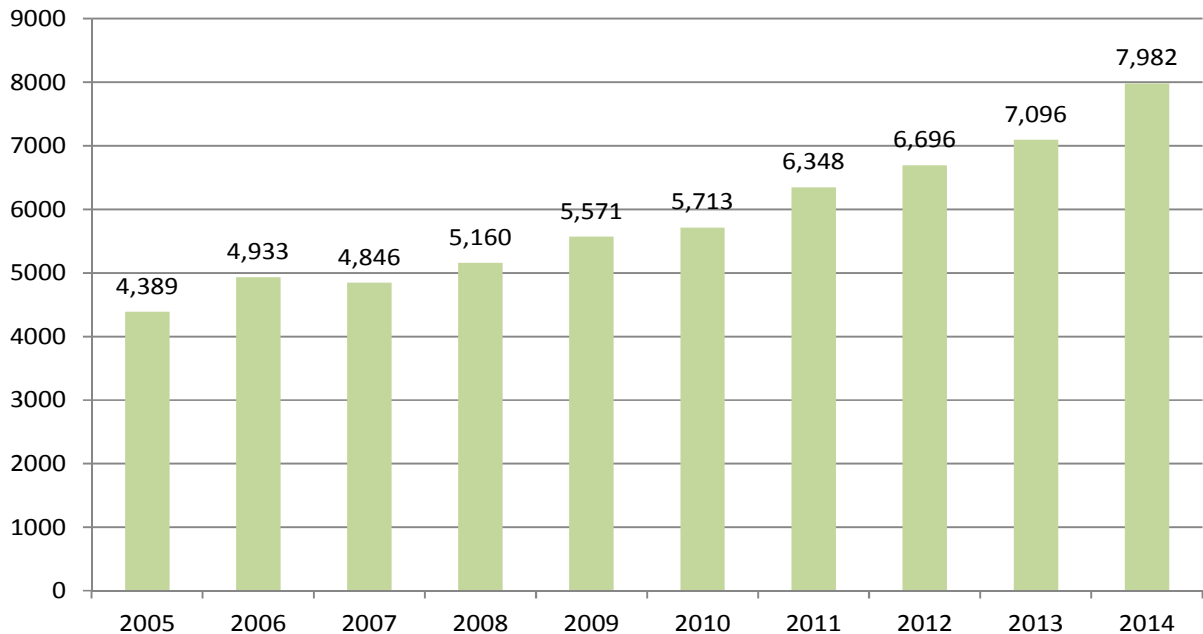
- 연평균 5.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해외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지속적 감소하는 추세

< 국내시장규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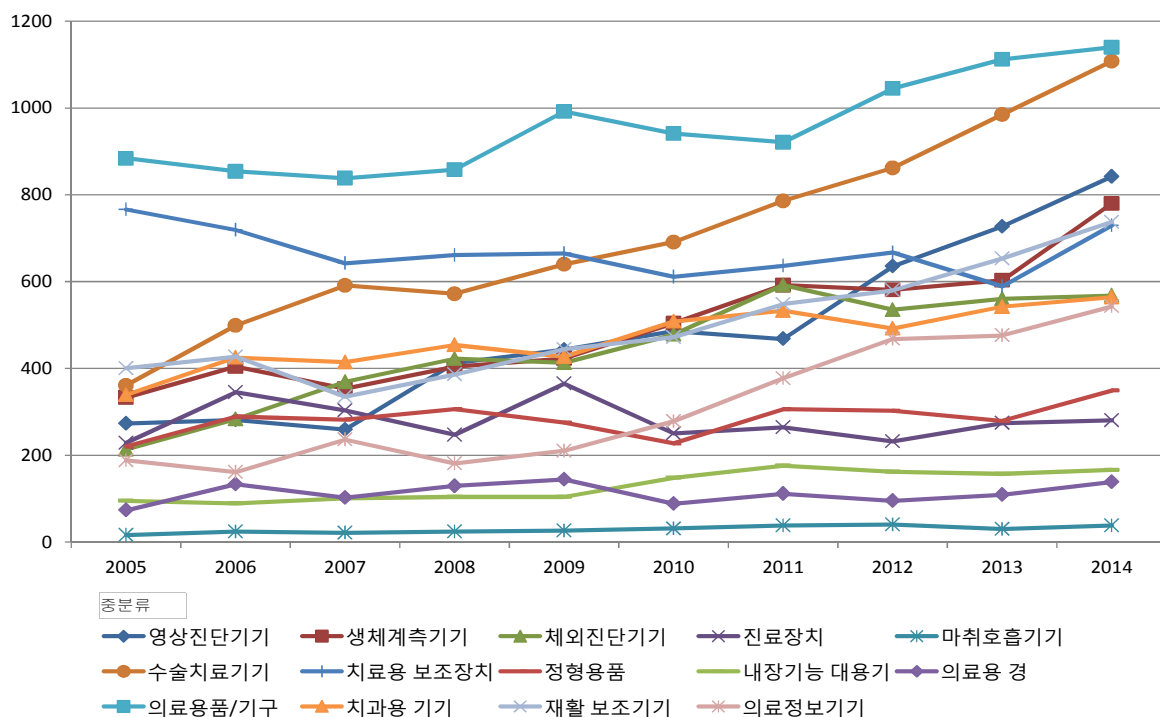


□ '05-'14년 의료기기 특허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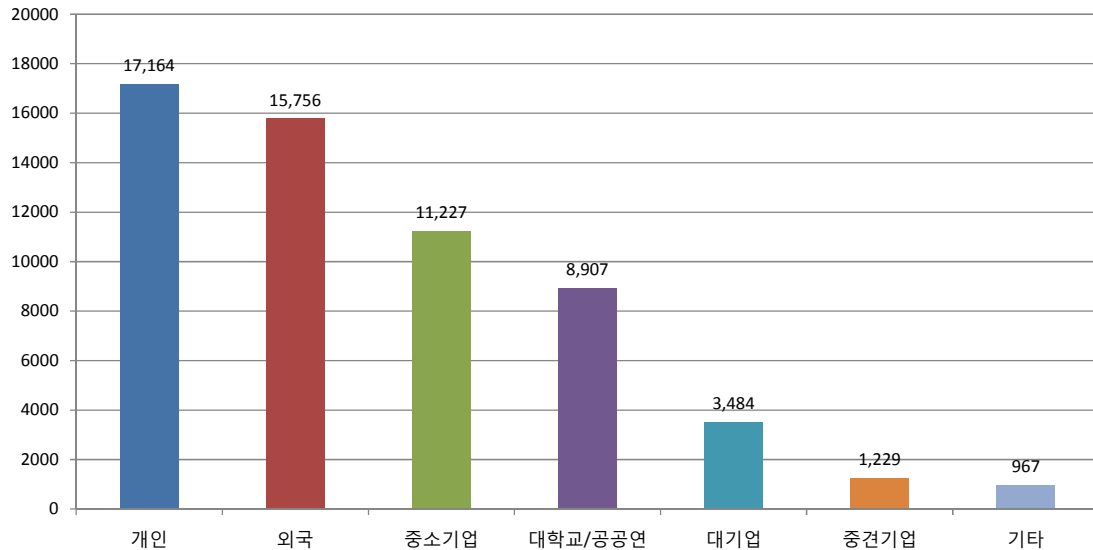
- (전체 출원동향) '05-'14년간 총 58,734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연평균 6.9% 증가함



- (중분류별) 의료기기 분야 14개 중분류 중에서 의료용품/기구, 수술치료기기, 치료용보조장치 순으로 많은 출원이 이루어짐



- (권리자 유형별) 개인(29%), 외국(24%), 중소기업(23%) 순으로 많은 출원이 이루어짐



- (다출원 기관)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외국 기업 중에서는 김벌리-클라크월드와이드,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많은 출원을 함
-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와 (주)제이브이엠이 각각 가장 많은 출원을 함

순위	출원인	출원 건	비고
1	삼성전자주식회사	1,527	대기업
2	삼성메디슨주식회사	993	대기업
3	김벌리-클라크월드와이드	611	미국
4	연세대학교	517	대학
5	서울대학교	516	대학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57	공공연
7	한국과학기술원	398	공공연
8	신세스 게엠바하	381	스위스
9	유니참	375	일본
10	고려대학교	326	대학
14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188	중견기업
21	(주)제이브이엠	161	중소기업